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강호동네서점’, 첫 손님 하정우의 깜짝 고백! “하와이 여행? 단둘이?”

2026. 3. 9.







쿠팡플레이 예능 <강호동네서점>이 지난 6일(금) 하정우를 첫 손님으로 맞이하며 전 국민이 기다려온 ‘MC 강호동’의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13년 만에 단독 토크쇼로 돌아온 강호동은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질문과 섬세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정우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이끌어내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호동네서점>은 목소리는 크지만 마음은 여린 INFP 책방 사장님 ‘호크라테스’(강호동)가 책방을 찾아 온 손님과 서로의 인생을 펼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강호동네서점>의 포문을 연 하정우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인생 책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밝힌 적 없던 다양한 선택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배우, 감독, 화가, 작가까지 다채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는 사람의 현실적인 고충과 웃픈 에피소드를 특유의 유머러스한 화법으로 풀어내며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열애설에 대해 어디서도 듣지 못한 솔직한 입장을 털어놓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에 “**행복하다**”고 답한 그는 “**연애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쑥스러운 뿐**”이라며 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진솔한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살아오며 가장 후회되는 선택으로 “**몇몇의 잘못된 투자**”라며 친근감을 보인 하정우는 감독으로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좋은 감독이 되려면 분명히 겪어야 하는 시간**”이라며 솔직한 고백을 꺼내기도 했다. 이어 화가로서 뉴욕에서 전시를 열었던 에피소드를 전하며, 그림이 한 점 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일화를 꺼내 짙은 웃음을 자아냈다.

배우, 감독, 작가, 화가로서의 다채로운 삶을 살아온 하정우의 사연을 모두 들은 ‘호크라테스’는 그의 인생 책값을 책정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다. 이에 하정우는 “**오늘 별책부록도 썼기 때문에 그것까지 책정을 해야 한다**”며 앞서 언급한 열애설 에피소드를 다시 꺼내며 마지막까지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호크라테스’는 수많은 역할을 거치며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하정우에게, 삶의 모험과 도전을 상징하는 [돈키호테]를 책값으로 건네며 “**당신의 가치는 꿈꾸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고 언제나 본인의 인생길을 두벅두벅 걸어가길**”이라는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넸다.

한편, 첫 번째 손님부터 방대한 인생 이야기에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며 진솔한 속마음을 이끌어낸 ‘호크라테스’에게도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호동아저씨 너무 귀여워요 텐션 너무 좋네요**”(네이버톡 열), “**역시 강호동은 강호동. 너무 귀여운 진행**”(네이버톡 응원), “**오랜만에 책 읽고 싶어서게 만드는 프로그램 ㅎㅎ 호도이hem 웰컴백**”(쿠팡플레이 R*), “**강호동 토크쇼 너무 반갑다. 분장도 귀엽고 이야기도 재밌다**”(쿠팡플레이면), “**기다린만큼 매력있는 강호동식 토크쇼**”(쿠팡플레이_소*)와 같은 호평은 목소리는 크지만 내면은 섬세한 책방 사장님이라는 새로운 페르소나의 성공적인 탄생을 알리며, 앞으로 펼쳐질 더욱 깊고 다채로운 인생 이야기들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네 ‘강호동’의 책방 사장님 ‘호크라테스’와 초특급 손님들의 진솔한 답변이 어우러질 <강호동네서점>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